

호남 최대 '광주역 스타트업 창업밸리' 속도 낸다

'복합허브센터' '빛고을창업스테이션' '푸른이음센터' 4월부터 준공 1668억 투입...도시재생 혁신지구 창업시설 2027년까지 단계별 구축

호남 최대 규모로 조성 중인 '광주역 스타트업 창업밸리' 구축 사업이 속도를 내고 있다.

21일 광주시에 따르면 '광주역 경제기반형 도시재생 뉴딜사업'으로 진행되는 '광주역 스타트업 창업밸리' 사업 중 하나인 연구개발(R&D) 융복합시설 '복합허브센터'가 오는 4월 첫 삽을 뜨고, 6월에는 초기창업지원시설인 '빛고을창업스테이션'이 준공돼 하반기 문을 열 예정이다. 또 창업밸리 마중물 사업인 '빛고을창업스테이션'과 '푸른이음센터'는 올해 하반기 준공한다.

부지 매입을 마친 '광주역 도시재생 혁신지구 사업'도 올해 본격적인 공사에 들어간다.

올 하반기 개소하는 '빛고을창업스테이션'은 초기 창업·중소벤처기업이 입주해 시제품 제작, 제품의 경제성 평가, 특허출원 등에 나선다. 광주시는 제품 판매활동 교육과 지역펀드 활용 및 투자자 연결 등을 지원한다.

이미 노후건물을 리모델링해 구축한 '어울림팩토리'는 올해 하반기 개소하는 '빛고을창업스테이션'은 초기 창업·중소벤처기업이 입주해 시제품 제작, 제품의 경제성 평가, 특허출원 등에 나선다. 광주시는 제품 판매활동 교육과 지역펀드 활용 및 투자자 연결 등을 지원한다.

이미 노후건물을 리모델링해 구축한 '어울림팩토리'는 올해 하반기 개소하는 '빛고을창업스테이션'은 초기 창업·중소벤처기업이 입주해 시제품 제작, 제품의 경제성 평가, 특허출원 등에 나선다. 광주시는 제품 판매활동 교육과 지역펀드 활용 및 투자자 연결 등을 지원한다.

이들 공간을 유기적으로 이어주는 '보행환경 개선사업'도 오는 6월 마무리한다. 광주시는 이 공간을 '걷고 싶은 길, 광주RE100'의 모델로 삼을 계획이다.

광주역 도시재생사업의 상징이자 열린 공간인 '문화마당'은 내년 착공을 목표로, 올해 내로 디자인 구상을 모두 마무리할 계획이다.

광주시는 광주역 유휴부지에 경제적 파급력이 높은 창업지원 기반시설(인프라)을 구축해 사회적 여건이 개선되면 쇠퇴한 도심에 경제적·문화적 재생을 통한 도시 자생력을 갖출 수 있을 것으로 내다 보고 있다.

지난해 부지 매입을 마치고 국가시범지구로 지정

고시된 '광주역 도시재생 혁신지구 사업'도 올해부터 본격화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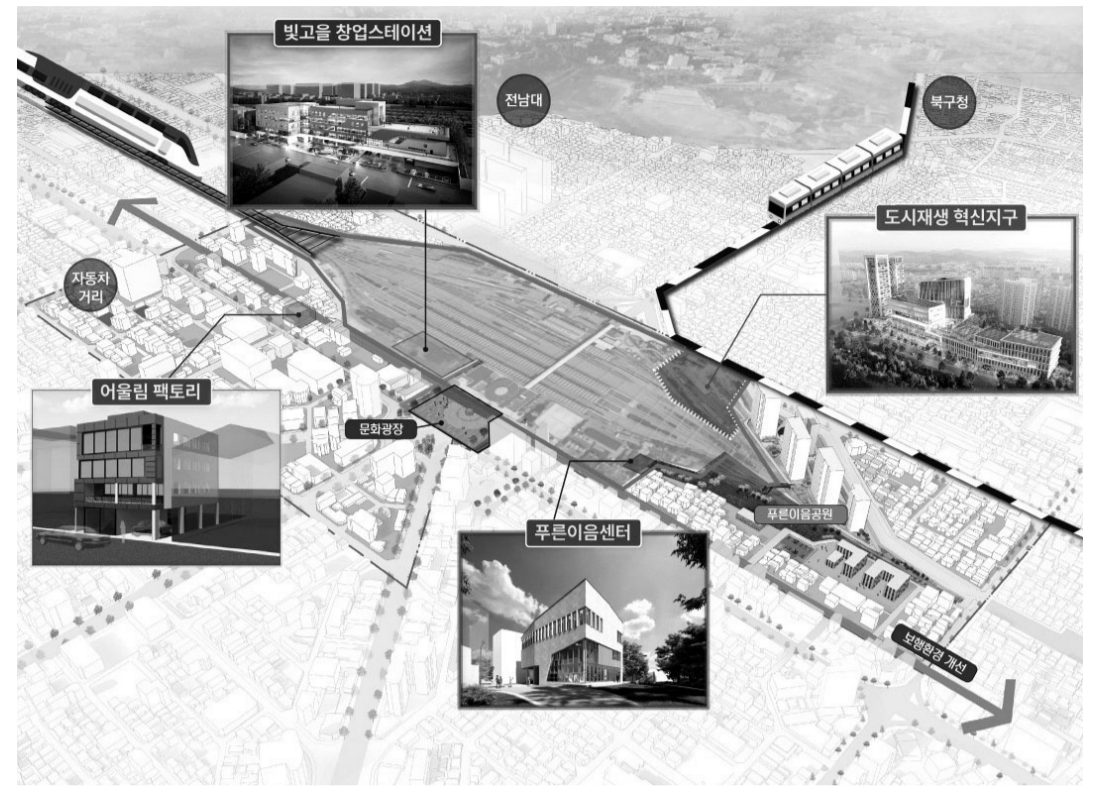
광주시는 오는 2027년까지 국비 250억원 등 1688억원을 투입해 '복합허브센터', '기업혁신성장센터', '사회적경제혁신타운', '일자리연계형주택' 등을 단계적으로 구축할 예정이다.

시는 또 오는 4월 연구개발(R&D) 융복합지원시설인 '복합허브센터' 착공을 시작으로 '기업혁신성장센터', '사회적경제혁신타운', '일자리연계형주택' 등의 시행계획안과 실시설계를 올해 내로 완료하고,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착공에 들어갈 방침이다.

광주시는 이들 사업이 완료되는 2027년부터 광주역 창업시설을 통한 운영과 광역권 창업시설들과 연계해 창업 전 과정을 원스톱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김준영 광주시 신활력추진본부장은 "빛고을창업스테이션 개관 등 광주역 스타트업 창업밸리 조성 사업이 올해부터 가시화될 것"이라며 "대규모 창업 기반시설을 중심으로 창업 전 과정을 효율적으로 지원해 광주 미래산업을 이끌 예비 유니콘기업 발굴과 함께 광주역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겠다"고 의지를 다졌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광주역 활성화계획 배치도.



미래차 부품산업 특별법 호남권 설명회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지난 18일 열린 미래차 특별법 호남권 설명회에 참석한 고광완 광주시 행정부시장 등 관계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광주시 제공>

광주역사민속박물관, 유물 구입 투명성·관리 강화 나서

공개구입·심의 강화 등 제도 개선방안 마련

광주역사민속박물관은 "유물 구입 절차의 투명성을 높이고 소장유물의 관리 강화를 위해 박물관 운영·관리 조례 개정을 추진하고 유물 취득의 부적절한 입수 경로를 원천 차단하는 내용 등을 담은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했다"고 21일 밝혔다.

광주역사민속박물관은 해마다 200~300여점의 유물을 구입하는 등 현재 1만7000점의 유물·민속 자료를 소장하고 있으며, 앞으로 유물구입 계획단계부터 관련 전문가 의견이 충실히 반영될 수 있도록 사전 의견을 수렴하고 적극 반영할 방침이다.

또 박물관이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해 설치한 운영위원회(관련 전문가 13인 위촉)에서 유물구입 전 단계로 목적과 방법, 절차 등을 검토해 투명성을 한 단계 더 높일 예정이다.

이 밖에도 유물 구입방식은 공개구입을 원칙으로 하고, 유물의 가치평가를 통한 구입여부, 가격 등을 결정할 감정심의회(인적 구성을 강화할 방침이다. 감정심의회는 지난해까지 3~5명(박물관 운영·관리 조례 근거, 3인 이상 7인 이내 구성)의 위촉위원으로 구성·운영했으나, 올해부터는 최대

7인까지 심의위원을 확보할 계획이다.

시민공개 확대를 위해 지난해부터 시행한 모든 유물에 대한 화상공개도 이어간다. 특히 광주시는 그동안 구입 전 화상공개 조건의 출처가 불분명하거나 고가의 희귀자료로 한정했으나, 지난해부터는 구입 예정 유물 전체로 확대했다.

최경화 광주역사민속박물관장은 "시민이 언제 어디서나 박물관 유물 정보를 열람할 수 있도록 단계적으로 전체 유물을 공개해 공정성과 공공성을 확대할 계획"이라며 "특히 관리강화 혁신방안을 추진해 역사자료 수집과 보존, 시민과 가치공유가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박진표 기자 lucky@

광주상수도사업본부, 차세대 정보시스템 구축

민원관리·행정업무 단축

광주상수도사업본부는 "차세대 상수도정보시스템 구축을 완료하고 정식 운영에 들어갔다"고 21일 밝혔다.

'차세대 상수도정보시스템'은 클라우드를 활용해 사용자, 민원관리, 수질정보, 누리집, 스마트그객민원시스템을 통합하고, 상수도 행정업무의 한번에 처리할 수 있는 시스템이다.

최신 정보통신기술(ICT) 반영과 사용자 맞춤형 서비스 제공을 위해 2022년 10월부터 2023년 12월까지 전면 재개발을 거쳐 차세대 시스템으로 구축했으며, 데이터베이스(DB) 표준화 99% 준수율 달성하고 기존 시스템보다 데이터 조회 속도 2배, 데이터 복구 기능 4배, 백업 기능 18배 향상 등 시스템 성능도 대폭 업그레이드됐다.

사용자 편의 측면에서도 반응형 웹 기반 개발을 통해 사용자에 PC와 동일한 모바일 환경 서비스를 제공하는 '스마트그객민원시스템'을 별도로 구축하고 민원접수 창구를 확대했으며, 네이버, 카카오, 구글, 디지털원패스 계정을 이용한 간편 로그인 기능 등도 제공하고 있다.

또 신용카드 자동납부 접수기능을 추가해 최장 7일까지 소요되던 자동납부 신청 처리기간을 실시간 처리되도록 개선했으며, 완납 또는 미납증명서도 시스템을 통해 열람·출력도 가능하도록 했다.

박한용 광주시 상수도사업본부 경영부장은 "이번 차세대 상수도정보시스템 구축을 통해 시민이 더욱 빠르고 간편하게 상수도 민원을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시민 편의를 지향하는 상수도 시스템이 될 수 있도록 지속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광주 다중이용시설 실내 부유 곰팡이 권고기준 초과

어린이집·의료기관 등 13곳

광주지역 상당수 다중이용시설에서 실내 부유 곰팡이가 권고 기준을 넘긴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광주시보건환경연구원에 따르면 지난해 다중이용시설 실내공기질 오염도 검사 결과 73개 시설 중 13곳(17.8%)에서 부유 곰팡이가 권고 기준 500CFU/㎥를 초과했다. 시설 전체 평균 농도는 436CFU/㎥였다. 26개 어린이집 중 8곳, 15개 의료기관 중 3곳, 노인요양시설과 실내 주차장은

각각 4곳 중 1곳이 실내 부유 곰팡이 권고 기준을 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 실내공기질 중 곰팡이는 사람에게 직접적으로 질병을 일으키는 병원균은 아니지만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킬 수 있다.

보건환경연구원 관계자는 "실내 곰팡이가 생겼다면 제거하고 집안에 누수와 같은 문제가 없는지 확인해야 한다"면서 "특히 요즘처럼 겨울에는 온도에 의한 습기가 생기지 않도록 하고 제습기나 에어컨 등으로 온·습도 관리에 신경 써야 한다"고 조언했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학폭 피해자에 따스한 바람이 닿기를

“ 지금도 어딘가에서 언제 죽을까, 어떻게 죽을까, '나 죽어도 우리 가족들 행복해야 할 텐데'라며 죽음을 생각하며 걱정과 고민을 하는 우리의 어린 자녀들을 어떻게든 돕고 싶었습니다. 저에게는 그 부분이 가장 간절했어요.”

이호동 교사가 학창시절 겪은 피해 경험 등을 담아 피해자와 가족에 건네는 위로

저기 환한 달이 되려나/ 혼자 떠난 너의 초행길에/ 나는 너의 달이 되려나
어디로 가느냐/ 갈 길은 어느나/ 가다가 길 잃거든/ 나를 보고 가거라/ 나를 안고 가거라.

- 이호동 <달이 되려나>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학교폭력예방 7중 시스템 “화제”
이호동 작가의 글, 부인 박소영 교사의 삽화 감동과 향기, 따스함을 전하다

<따스한 바람이 너에게 닿기를>
저 자 이호동 | 삽 화 박소영 | 출판사 가현정북스